데스크시각

문화 광주, '백 투 더 베이식!'

(Back to the Basic)

박 진 현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오랜만에 만난 청년 작가 A씨는 지난해 자신의 '무능력'으로 좋은 기회를 놓쳤다며 씁쓸해 했다. 평소 독창적인 작업으로 주목받는 그의 입에서 나온 자조 섞인 한탄은 왠지 지나친 겸손으로 들렸다. 하지만 저간의 사연을 들어 보니 그럴 만도 했다.

후원금 유치에 나선 작가들

지난해 봄, 그는 광주문화재단(문화재단)으로부터 '2017 한국메세나협회 지역특성화 매칭 펀드 사업 설명회에 참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매칭 펀드 사업은 메세나협회가 작가들의 창작을 지원하기 위해 1대 1 매칭 형식으로 기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당시 문화재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메세나협회로부터 7500만 원을 '따왔다'며 매칭 펀딩 방식에 따라 7500만 원을 추가 유치해 총 1억3000만 원을 지역 작가들에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A씨처럼 희망을 품은 10여 명의 작가가 참석했다. 하지만 문화재단은 작가들에게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유치해 오면 매칭 펀드의 혜택을 주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가령, A씨가 특정 기업으로부터 2000만 원 기부 약정을 받아 오면 매칭 펀드로 2000만 원을 '보태' 총 40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작품성이나 작가의 역량은 지원 요건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 아닌 듯했다.

하지만 말이 쉽지 작가들이 기업을 찾아다니며 후원금을 유치하기란 녹록지 않다. 어떤 기업이 메세나 활동에 긍정적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느닷없이 문을 두드리는 건 '맨땅에 헤딩'하는 격이기 때문이다. 인맥이 넓지 않은 젊은 작가의 경우엔 더더욱 그렇다.

아니나 다를까. 이 자리에 참석한 대다수 작가들은 문화재단이 요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매칭 펀드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당시 B 작가는 모 기업 대표에게 후원을 청하는 과정에서 '대가'를 바라는 듯한 뉘앙스를 접하고 불쾌감을 느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지역 미술계에선 문화재단의 안일한 자세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매칭 펀드 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문화재단이 기업들로부터 기금을 유치해 작가들에게 나눠 줘야 하지만 재단의 인력 부족과 작가의 자생력 등을 운운하며 '한 발짝 물러서'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예술인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직접 유치 활동에 나서게 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긴 하다. 장기적으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옳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역의 척박한 메세나 현실을 감안하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런 점에서 인천문화재단의 행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16년 한국메세나협회와 지역특성화 매칭 펀드 사업을 추진한 인천문화재단은 지역 내 기업들로부터 총 1억2천만 원(1대1 매칭)의 재원을 확보했다. 프로그램 취지와 기대 효과 등을 담은 기획서를 들고 기업 관계자를 찾아다니며 후원금 유치에 나선 덕분이다.

외적 성과에만 치중해서야

문화행정의 '기본'을 간과하는 곳은 비단 문화재단만이 아니다. 지역의 대표 미술 기관인 광주시립미술관은 미술관 운영의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인 '교육'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다. 예술 교육은 연초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의 문화 생활 향유 보장을 내걸고 5개년 사업으로 선정한 새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다.

이런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선 광주시 차원에서도 생애별 문화 예술 교육을 추진해야 하지만 정작 이를 구현할 시립미술관에는 에듀케이터가 없다. 문화 예술 교육을 전담하는 담당자가 없다 보니 부속 시설인 어린이 갤러리는 한 사회 기관에 맡겨 수년째 위탁 운영하고 있고, 가족 단위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아트 피크닉' 역시 매년 공모를 통해 주관사를 뽑고 있다. 가장 전문적이어야 할 미술관 교육이 '외부의 손'에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광주시는 정기 인사를 통해 시 문화 행정의 컨트롤 타워인 문화정책실장을 6개월 만에 교체해 입방아에 올랐다. 지난해 7월 임명된 전임 문화정책실장이 업무 파악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할 무렵, 타 부서로 발령이 난 것이다. 2015년 이후 최근까지 문화정책실장을 거쳐 간 고위공무원이 네 명에 이르는 것만 봐도 시의 문화 사령탑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간다. 다른 분야에 비해 전문적인 식견이 더 요구되는 문화 행정의 특성을 망각한 처사임에 틀림없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지역의 문화 예술 기관들은 장밋빛 청사진으로 한 해를 연다. 시민들의 문화 향유 확대에서부터 역동적인 예술 환경 조성, 문화 생태계 활성화, 예술인 일자리 창출 등 광주의 미래를 좌우하는 묵직한 화두를 내놓으며 저마다 존재감을 드러내기에 바쁘다.

하지만 문화 광주의 '근간'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내부 역량 강화에는 소홀한 채 외적 성과에만 치중한다면, 이들의 화려한 비전은 공허한 울림에 그칠 뿐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될 터. 그래서 말인데, 올해는 '기본'에 충실한 한 해를 만들자. '레츠 고, 백 투 더 베이식!' /jhpark@kwangju.co.kr

기 고

어른들이 설 자리

이 세 천
전 광주학생해양수련원장

동남아시아의 한 나라를 한 달 가까이 다녀왔다. 그 분들이 사는 모습을 보며 내가 서 있을 곳에 대하여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다.

그 곳 60대 남성들은 젊은이들이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는데 함께 일하지 않고 의견만을 제시하며 지켜보고 앉아 있었다. 젊은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말씀에 따르는 것 같았다. 왜 저 분들은 손을 보태지 않느냐니까 젊은이들도 어른들의 그런 모습이 당연하다는 투다.

우리나라에서도 60년대 뜨거운 여름날 논밭에서 땀 흘려 일할 때, 60대 이상의 노인들은 시원한 정자에서 일하는 것을 참견하시던 모습이 생각나서 이유를 알아보니 우리와 유사했다. 어른들은 젊은이들의 모범이 되고 올바르게 살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잘못하면 심하게 꾸짖으므로 호랑이 같은 어른들을 젊은이들이 조심한다고 한다.

그러나 산업화가 상대적으로 많이 진행된 우리나라에서 어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많은 고민이 따른다. 길거리에서 안하무인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청소년을 지도하려다 오히려 낭패를 당한 소식을 접하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어렵더라도 어른들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들리고 있다.

우리도 동남아시아의 그 나라처럼 젊은이들을 직접 지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진리는 시대가 바뀌었다고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어른들이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모범이 되는 것은 예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진리의 참뜻이나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을 잘못 파악하고 어른들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강요할 때 젊은이들이 흔쾌하게 인정할까?

현재 어른들과 젊은이들이 가장 첨예하게 부딪치는 부분은 인간에 대한 이해와 서로의 관계다. 젊은이들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존중해주기를 기대하는 반면 어른들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고치기를 요구한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어른들과 만나기를 꺼리고 어른들은 젊은이들을 한탄한다.

사실 신분, 인종, 성별, 사상, 나이와 상관없이 인간이 소중하다는 생각은 2500년 이전부터 성인들도 주장했다. 석가도 예수도 당시로서는 혁명적일 만큼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대접해야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사회적 구조는 주인과 노예, 양반과 상민, 노소, 남녀 차이를 만들었고 심지어는 믿음과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싸움이 끊이지 않았다.

인류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데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공감하고, 이제 경계를 허물고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려고 한다.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지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오랜 인류의 숙원이었으며 우리 시대가 문을 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산업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짧은 시간에 여러 흐름이 동시에 나타난 현상이라, 지나치게 남녀노소가 뒤바뀌고 귀천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과도기적 현상이 나타나서 당황스러워한다. 심지어는 윤리와 도덕이 무너졌다는 탄식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어른들이 젊은이를 지도한다면서 구시대의 질서를 윤리나 미풍양속으로 치부하며 젊은이들에게 강요한다면 설득력을 얻지 못할 것이다. 설령 어른들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올바른 것이라도 서로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것이라면 다시 한 번 돌아보고 검토할만하다.

우리사회가 어른들에게 간절히 요구하는 역할은 없을까? 내 교직 경험으로 느낀 바는 즐겁고 아무 생각 없이 보이는 아이들도 의외로 고민이 많고 외로워한다. 부모나 선생님 심지어는 친구들과도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지 못하며 방황한다. 이들 중 더러는 폭력적이 되기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조차 한다. 그러나 어른들은 아이들이 처한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끊임없이 좀 더 열심히 경쟁에 이기기를 강요한다. 사실 많은 아이들에게는 무엇을 요구받기 보다는 쉴 곳과 포근한 보금자리가 필요하다.

세상은 좀 더 빨리 좋은 결과를 강요하면서도 힘들고 지친 젊은이들을 위로하며 숨 한 번 크게 쉬도록 감싸는 울타리가 부족하다. 가정도 학교도 회사도 시장에도 울타리가 없다. 아무 부담 없이 자신의 아픔을 털어놓고 위로 받을 공간이 없다.

중궁이 인(仁)에 대해서 여쭙자 공자는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己所不欲 勿施於人)고 했다. 어쩌면 어른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살피고 젊은이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른들이 서 있어야 할 곳이 아닌가 싶다.

기 고

모두가 만족하는 중학교 배정

김 두 진
광주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팀장

매년 1월 말이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3월부터 다닐 중학교를 발표한다. 초등학교에서 한 학년씩 올라가는 것에 비해 중학교에 진학하는 경우는 차원이 다르다.

학교가 바뀌어 새 교육환경에서 선생님과 친구를 새롭게 만나는 것이다. 이맘쯤 되면 중학교 신입생 자녀를 둔 학부모는 기대보다는 걱정이 많다. 우리 아이가 어느 학교로 배정이 될지, 과목마다 시간마다 선생님이 바뀐다는데 중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지, 자유학년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 그 중에서도 단연코 최대의 관심사는 중학교 배정이다.

광주시교육청에서는 학교군별로 컴퓨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중학교를 배정한다. 필자는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중학교 신입생의 학교 배정 업무를 맡고 있다. 2018년 초등학교 졸업생은 98개 초등학교에 총 9528명이다. 이들을 58개 중학교에 배정하는 것이 내 임무이다. 학교 수가 워낙 많다 보니 교육청에서는 6개의 지역으로 세분하고, 시내와 동떨어진 대촌, 평동, 임곡을 별도로 구분지어 배정해 왔다. 그 결과 작년에는 통학 시간을 고려해 출신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도보나 대중교통으로 30분 이내의 중학교로 배정했다. 그 결과 1개 초등학교 졸업생은 적게는 2개, 많게는 5개의 중학교로 분산 배정된다.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서구와 남구, 광산구를 담당하여 구역이 넓은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배정을 진행하기 위하여 일 년 동안 나름대로 차분하게 준비해 왔다. 50회가 넘는 학부모 간담회를 열었고 전체 초등학교 6학년 부장교사와 협의회를 통해 민원을 듣고 배정을 기피하는 중학교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였다. 통학 시간 측정을 위해 등교 시간에 맞추어 직접 현장에 나가 버스를 타거나 걸어서 점검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업무 담당자로서 걱정이 많다. 전국 여느 교육청도 비슷한 현상이지만 배정 발표 후 만족도가 낮기 때문이다. 불만을 담은 민원 전화 내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내가 살고 있는 집 앞에 중학교가 있는데 먼 곳으로 배정이 되었다." "우리 아이는 공부를 잘하는데 사립학교가 아닌 왜 공립학교로 배정을 했느냐?" "어떻게 중학교 1학년을 버스를 타고 통학을 하라고 이렇게 배정을 했느냐?"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민원 내용에 일부 공감도 되지만 여타 사람들의 동의를 얻기 힘든 경우도 많다.

최근 들어 신시가지의 택지 개발과 도시 공동화로 인해 특정 학교의 선호 및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게다가 사립학교의 비율이 높고 또한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학부모들의 요구 사항인 노후 시설을 새롭게 고치고 학생 편의 시설을 확충하였지만,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하거나 학교를 새롭게 설립하는 것처럼 곧 바로 풀기 어려운 과제도 있다.

배정을 앞둔 시점에서 학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녀의 미래를 엄마·아빠의 잣대와 기준으로 재단하지 말자는 것이다. 아이는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미래이다. 학생들은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할 열정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학생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진로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가 질 높은 교육이다.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실제 생활 문제에 적용하는 경험을 제공해 주는 학교가 훌륭한 학교이다.

또한 중학생으로 성장한 만큼 초등학생에 비해 생활의 울타리가 커져야 한다. 우리 아이들은 자라고 있다. 20분을 걸어다니면 잠이 모자라니까 학교가 멀다고 한다. 버스를 타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못 보내겠다고 한다. 이보다는 '집에서 약간 떨어진 학교에 배정받았지만 우리 아이가 좀 더 부지런해질 수 있겠다, 자연 속에서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도, 생각 주머니를 키울 시간도 가질 수 있겠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 주셨으면 한다.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더 많은 성장 모멘텀을 얻기 때문이다.

일 년을 노력해왔지만 모든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중학교 배정은 없을 것 같다. 다만 '성심을 다해 궁리하다보면 정답에서 멀지 않다'(心誠求之, 不中不遠矣)는 옛 사람의 말에서 위안을 삼고 싶다.

社 說

주민 건강 위협 미세 먼지 근본 대책 세워야

올 들어 광주·전남 지역에 미세 먼지 주의보가 네 차례나 발령되는 등 대기질이 크게 악화하면서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일상화된 미세 먼지 공습으로 병원과 약국을 찾거나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는 주민들도 늘고 있어 근본적인 저감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광주 전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다. 이날 광산구 오선동의 미세 먼지 최고 농도는 106㎍/㎥으로, '매우 나쁨(101㎍/㎥ 이상)'이었다. 앞서 지난 18일과 19일에도 광주·전남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다. 당시 최고 농도는 177㎍/㎥를 기록한 나주시 빛가람동이었다. 이는 지난해 1월 광주·전남 평균보다 최대 일곱 배나 높은 수치다.

문제는 대기의 정체로 미세 먼지가 이달 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미세 먼지의 공습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광주의 경우 미세 먼지 경보제를 도입한 지난 2013년 경보 발령이 1회에 그쳤으나 2015년 13회, 2017년에는 12회에 달했다.

대기 오염이 심화하면서 예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광주 지역 대기 오염 측정소는 건국동·두암동·농성동·주월동·송정동·서석동 등 아홉 곳에 불과하다. 따라서 다른 동 주민들은 대기 오염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만큼 미세 먼지가 많은 도심권 도로변을 중심으로 측정망부터 늘려야 할 것이다.

1급 발암 물질인 미세 먼지는 정부와 지자체, 산업계, 시민 등 우리 사회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과제다.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주는 중국과 환경 외교를 강화하면서 미세 먼지 배출량이 많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저감 장치 부착을 서둘러야 한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도 필요하다. 아울러 시민들도 미세 먼지 주의보가 내려지면 자동차 운행을 삼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적극 협력해야 하겠다.

'도로인데 도로 아닌 도로 같은 도로'라니

운전을 하다 보면 건물 내 주차장이나 학교 또는 아파트 단지 등에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한데 이들 지역의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사고가 나더라도 범죄 행위가 아니면 경찰이 개입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로 인해 피해자와 가해자 간 다툼이 커지는 경우도 많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아파트 단지나 건물 주차장 또는 대학교처럼 경비원이나 차량 통행 시스템이 설치돼 외부인의 차량을 통제하는 장소의 도로는 '도로외구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때문에 뺑소니, 음주 운전, 인명 피해 사고가 아니면 사고가 나더라도 법적 처리나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중앙선까지 있는 데 도로가 아니라고 하니 운전자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됐지만, 주민만 이용하는 지하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어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 운전자들의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여기에 출입 차단 시설이 없는 아파트 단지의 통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므로 도로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혼란스러운 법규로 인한 피해 발생은 물론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지하 주차장 진출입 통로에서의 접촉 사고가 대표적인 예이다. 분명히 한 쪽이 중앙선을 넘은 100% 과실 사고여도, 이를 보험 처리하면 대부분 과실 비율이 6 대 4나 심지어 5 대 5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중앙선을 넘은 가해자가 부상을 당했다며 허위로 보험을 청구하기도 한다.

운전면허를 딸 때 중앙선은 생명선이라고 배운다. 법률상 도로가 아닐지라도 중앙선이 존재할 정도로 차량 통행량이 많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는 도로교통법을 확대·적용할 수 있도록 법규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색깔론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케케묵은 '색깔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남북 단일팀 구성과 한반도기 사용에 제동을 거는 것도 모자라 평창 동계올림픽에 '평양 올림픽'이라는 딱지까지 붙인 것이다. 평화를 상징해야 할 올림픽 정신이 국내 정치권에서는 묘하게 색깔론으로 변질되고 있다.

지난 2011년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이 평창 올림픽 남북 단일팀 지원에 합의해 놓고 뒤늦게 색깔론 공세를 펼치고 있는 데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결집을 위한 의도가 있을 것이다. 더욱 가관이었던 것은 지난 23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신년기자회견이다. 이날 제1야당 대표의 입에서는 '좌파'란 말이 17차례, '사회주의' 4차례, '좌파 국가주의'가 5차례나 언급됐다.

'민생'과 '경제'도 없고, 보수층이 바라는 새로운 보수의 방향에 대한 제시도 없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철 지난 색깔론 공세' '빨갱이 장사 질리지도 않나'는 등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홍 대표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1950년대 '매카시즘' 광풍을 몰고 온 조지프 매카시 전 연방 상원의원이 떠올랐다. 1946년에 위스콘신주 연방 상원의원으로 당선된 매카시는 로비스트로부터의 금품 수수, 경력 위조 등으로 인해 정치적 사면초가에 몰렸다. 정치 생명이 끝난 것으로 여겨졌던 매카시는 "미국에서 공산주의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공산주의 명단이 있다"고 국민의 시선을 '반공'(反共)으로 돌리면서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고 반대로 대중적 인기를 끌었다.

현 정부의 과거 '적폐 청산'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의 대표가 '색깔론'을 들고 나온 것은 정치적인 위기를 모면해 보자는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시대가 바뀌고 국민의 정치적 의식이 성숙한 지금 '색깔론'은 이제 정치권에서 사라질 때도 되지 않았나.

지역주의와 색깔론에만 안주했던 보수 정치권도 이제는 새로운 지도력 구축과 인적 구성의 다변화를 통해 한국 보수 교체에 나섰으면 한다.

/최권일 정치부 부장cki@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사 회 부 220-0642
사 회 2부 220-0652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문 화 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7-95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